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5>

무엇이 도인입니까?
〈道人〉

학승이 물었다.
"밝은 달이 허공에 당당하게 걸려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학승이 대답했다.
"아무개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밝은 달이 허공에 당당하게 걸려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問 朗月當空時如何
師云 闍黎名什麽
學云 某甲
師云 朗月當空在什麽處

낭월당공(朗月當空)은 구름도 없는 밤하늘에 보름달이 낭낭하게 떠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가에서는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서 화두를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몽중일여(夢中一如)에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상태이기도 하고, 선객들이 성성하게 화두가 들려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온전히 하나에 몰입된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낭월당공에 도달하면 조만간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축착합착하고 줄탁동시가 오려는 전조 단계이다. 누가 낭월당공의 경지에 오르면 본인은 물론이고 종문의 경사이다.

선사는 오차 없이 지도해야 한다. 우선 낭월당공에 대한 정확한 뜻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학승이 낭월당공에 들어가서 어디 하나에라도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망치게 되므로 선사의 지도는 항상 법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우선 학승더러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었다. 그때 학승은 또렷하게 자기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다. 자신의 이름을 낭낭하게 거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낭월당공의 경지와 같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고는 곧바로 "밝은 달이 허공에 당당하게 걸려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하고 낭월당공이 걸려 있는 그곳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물으면 학승은 순간 깨어나던지, 아니면 그곳이 어디인가? 하고 새로운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지도하므로 해서 낭월당공에 빠지게 되는 과오를 수정해 주고, 또 공부가 익은 납자라면 순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16일에 당하면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찾아도 찾을 수 없어."

問 正當二八時如何
師云 東東西西
學云 如何是東東西西
師云 覓不著

16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시 상황이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절에서 6, 16, 26일은 빨래하는 날이다. 이 날 이가 죽으면 천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 16일은 해제 다음날로서 선객들이 사방으로 만행을 떠나는 날로 추측해볼 수 있다.

3개월 수행이 끝나 해제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선객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자 만행을 떠난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떤 방향이던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떠난다. 혹은 훌륭한 선사를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묻고 깨닫기 위해 목적지를 두고 가기도 한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하지 않았는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발가는 것에 답이 있을 수 없다. 공부하는 수행자의 조그마한 멋이 바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가다가 되돌아온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묻지도 마라! 인생의 의미는 원래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동쪽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묻지마라
인생의 의미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도인(道人)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도를 향해 가는 사람을 불인(佛人)이라고 한다네."

問 如何是道人
我向道是佛人

도인(道人)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불리던 호칭이다. 동양에서 도(道)는 만물의 근원을 말하고, 만물의 근원에 준해 생활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혹은 도가(道家)적 수도인을 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찌됐든 도를 행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인(佛人)은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佛)라는 말은 성인의 의미에 가까운 말이지만, 불인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특별함 보다는 평범한 사람이 도를 깨달은 것을 강조한 말이다.

조주 스님은 도를 향해 가는 사람을 불인(佛人)이라고 했다. 즉, 조주 스님은 동양에서 만물의 근원을 도(道)로 본다면 그 도를 향해 가는 사람이 곧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도(道)라는 말이 도가적 용어라고 해도 만물의 근원을 지칭한다면 불인이 곧 도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나 법성이 동양에서 말하는 도와 같은 의미이므로 굳이 명칭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이다. 불교의 통합과 회통의 정신을 잘 보여준 선문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승이 물었다.
"대저 뭐라고 말하거나 손을 올리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하면 모두 학인의 그물 속에 떨어집니다. 이것들을 떠나서 스님께서 말씀해보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점심을 먹고 아직 차를 마시지 않았어."

問 凡有言句擧手動足 盡落在
學人網中 離此外請師道
師云 老僧齋了未喫茶

여기서 학인의 그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의 그물이다. 도를 표현하는데 언구나, 손발을 써서 그것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그물에 걸린 것 일뿐이다. 뿐만 아니라, 묵언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물에 걸린 것은 마찬가지이다. 선문답에서 가끔 거론하는 어묵동정(語默動靜)을 여의고 한 마디 이르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다.

흔히 이러한 질문은 선사가 학인에게 내리는 질문이지만 학승이 선사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도를 깨달은 선사라면 이러한 질문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설사 학승이 선사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답해 학승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혹 선사의 답변으로 학승이 깨닫는다면 그것은 큰 소득이기 때문이다. 조주선사 역시 망설이지 않고 즉시 답변했는데 참으로 기묘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노승은 점심을 먹고 아직 차를 마시지 않았어"라는 이 한 마디는 선의 핵심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천하의 변재들도, 기연연구나 할을 잘 쓰는 대종장들도 여기서는 할 말을 잃는다. 도대체 조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원래 여기에 사족을 붙이지 못하지만 독자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주 스님의 둔갑술은 제갈공명도 두 손을 든다"고 하겠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⑯ 참동계

부처님 마음은 본래 일미평등
〈一味平等〉

육조혜능의 법을 이은 제자 43인 가운데 청원행사에게는 전법제자에 석두희천(700~790)이 있다. 석두희천의 저술로는 <참동계> 및 <초암가>가 있다. <참동계>에서 제시한 열린 관계[回互]와 닫힌 관계[不回互]의 개념은 이후 조동선의 기본적인 교의가 됐다. 석두는 마조도일(馬祖道一)과 더불어 강서와 호남의 이대사(二大士)로 알려진 인물이다. <참동계>는 심원한 철학시에 해당한다. 곧 인간의 심성과 그것을 전개한 것으로 세계의 참동성(參同性) 곧 교호매개(交互媒介)의 모습을 구명해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 것이다. 특히 오대의 법안문익(法眼文益: 885~958)은 <참동계>에 간략한 주석을 붙여서 유통시켰다.

"밝음에 본래부터 어둠 있으니/ 어둠의 상으로 헤아리지 말라/ 어둠에도 본래 밝음이 있기에/ 밝음의 형상으로 찾으려 말라/"는 대목은 <참동계>에서 제시한 열린 관계[回互]와 닫힌 관계[不回互]의 개념을 잘 드러내준 것으로서 이후에 동산양개의 <보경삼매가> 및 <동상오위송> 등으로 전승됐다. <참동계>는 5언 44구 220자로 구성돼 있는데 2구씩 운을 맞춘 고시체의 글이다. 이와 같은 문체를 게송이라 말하는데 석두의 시대는 시문이 자못 융성한 까닭에 석두도 5언률의 시문에 의탁해 불법의 도리를 송출한 작품이다.


육조 혜능(慧能, 638~713)

석두희천이 <참동계>를 저술한 이유는 이전 시대부터 있던 도교의 명칭을 빌려 자파의 가르침으로 삼으려는 뜻이 있었다. 곧 <참동계>라는 제목은 위나라 백양(伯陽)이 쓴 <참동계> 3권의 선서(仙書)에서 따온 것이었다. 백양의 제목의 뜻을 보면 천(天)·지(地)·인(人)이 참(參)이고, 그것이 하나로 합해 가이없는 것을 동계(同契)라 하여 그 원리를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러나 석두희천의 <참동계>는 그와는 다르다. 단지 말만 빌렸을 뿐 그 내용을 완전히 바꿨다. 즉 석두의 <참동계>에서는 뜻을 오직 불법의 대의인 만법일여(萬法一如)와 연기무생(緣起無生)의 도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참동계>의 제목인 참·동·계라는 세 글자는 전편의 대의이기도 하다. 참(參)은 삼라만상과 주·행·회향·지(住·行·廻向·地)의 사성(四聖)과 천·인·수라·축생·아귀·지옥(天·人·修羅·畜生·餓鬼·地獄)의 육범(六凡) 등 일체가 각각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동(同)은 일체가 현상으로 보면 각각 천차만별이지만 본체로 보면 주호도 차이가 없는 제법평등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 계(契)는 앞의 참(參)의 차별현상과 동(同)의 제법평등이 상호간에 상즉상입(相卽相入)하는 묘용을 나타낸다. 이리하여 참(參)은 차별적인 만유현상의 모습으로 형상을, 그리고 동(同)은 그 현상의 이면에 깔려 있는 본체로서의 근본을 말하는 바탕을, 나아가서 계(契)는 이러한 차별현상과 그 동일성으로서의 본체를 열린 관계[回互]와 닫힌 관계[不回互]의 원리로 수용하는 차별이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차별이라는 만법의 묘용에 배대된다. 이처럼 석두의 <참동계>는 내용에 있어서 백양의 <참동계>와는 사뭇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석두는 이러한 만법평등의 원리에 입각해 당시 남돈북점(南頓北漸)이라는 남종과 북종 사이의 상호배격을 일소해 평등일여의 대도를 천명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본 내용을 보면 처음 4구는 사람에게는 근기의 차별이 따로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마음은 본래부터 남돈북점이 없이 일미평등(一味平等)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출발부터 당시에 팽배해 있던 남종 및 북종이라는 분별심을 지양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일미평등한 불법의 도리를 일곱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의 근원이 온갖 현상으로 드러나며[一源卽萬派] 온갖 현상은 결국 한 가지 근원이라는[萬派卽一源] 도리를 방편과 진실로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진실한 깨침은 언설의 현상을 초월한 것으로 그 근본종지를 꿰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몸소 왕삼매(王三昧)의 체험을 통한 부처의 마음은 바로 다름아닌 법은 본래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법의 동일성이야말로 영원한 불법으로 통하는 열린 관계 '참'과 '동'과 '계'의 본래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참동계>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근원이 온갖 현상으로 드러나는[一源卽萬派] 도리와 열린 관계이면서 동시에 닫힌 관계이기도 한[回互卽不回互] 일미평등의 원리는 이하 동산과 조산에 있어서 오위사상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법원, 사상 2번째로 불교계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 받아들여

비구니 스님의 성추행을 비롯해 종단 소속 사찰을 강제로 강탈하려 하는 등의 행위로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대한불교법화종' 前 총무원장 김용대(법명:혜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주심 최성준 판사)가 9월 8일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김용대 총무원장이 이 날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한불교법화종은 종단이 정상화 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 유종표(법명:원봉)와 이승철(법명:일광)이 법화종 총무원장 김용대에 대해 제기한 '총무원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김용대 총무원장은 종단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것은 물론 지난 5월 제18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총무원장직에서 정지되게 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인 유종표, 이승철 스님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지난 2010년 1월 28일자로 '종권 정지3년'의 징계처분을 내려 총무원장 출마 자체를 막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에 불복한 유종표, 이승철 스님이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해 유종표 스님에 대한 징계에 대해 "효력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부정선거와 관련, 그동안 드러난 비리에 대해 "정화추진위원회"가 김용대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 패륜적 행동과 종권의 장기 집권을 막고, 종단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정화추진위원회 소속 스님들에 대해 불법적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이유 없다"며 정화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어 "그동안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는 판결을 구하면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징계를 남발하고, 종단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불법적 행각을 자행한 것을 인정할 상당한 법적 근거 있어 직무를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인 박선주 변호사를 '대한불교법화종'의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직무범위 및 권한을 위임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이번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김용대 전 법화종 총무원장은 종단 내 비구니를 호텔로 유인해 강제 성추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은 물론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최종학력 허위기재(이력서에 기재한 한양대학교 교무처에 조회한 결과 모두 허위로 드러남) 및 승려 수행경력도 허위기재 의혹을 받았었다.

뿐만 아니라 김용대 전 총무원장은 "종단 소속 사찰인 '교헌사'와 '청룡암' '화봉암'을 편취하려다 고소당해 부산지법으로부터 공갈, 협박,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대방사 및 흥국사, 은적사, 안정사, 금불사 등 사유 사암을 강탈하기 위해 주지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스님들은 지난 2008년 정화추진위원회 (당시 위원장 지성 스님)를 구성해 종단의 정화를 촉구하여 성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양심적 행위와 패륜적 사기행각의 종지부를 찍고 종단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 오던 중 이날 총무원장 직무정지를 당하게 됐다.

2010년 9월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사무장 017-227-4717)